

포용을 위한 첫걸음: 트랜스젠더 공동체와 함께 존엄이 희망을 만나는 곳



2026년 3월 21일 인도 방갈로르에 위치한 노트담 관구 본원에서 우리 JPIC 프로젝트 "포용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은 방문 관구의 삶과 사명에 있어 의미 있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구장 메리 체타나 수녀의 격려사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 숭고한 노력에 큰 힘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에 관한 총회의 사명에 뿌리를 둔 이 첫걸음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두번째 목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를 반영하며, 생태 정의를 증진하고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트랜스젠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손수레를 배포하여 수혜자들이 소규모 채소, 과일, 꽃 판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식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리 도구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다섯 명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이들이 인도 택시인 오토릭샤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독립과 안정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혜자는 사비타, 샨타, 시바 프리야, 시바냐, 라티, 레바티, 라티암마, 아이슈와리야, 파얀카, 칼키, 라주, 카비타 A, 카비타로,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녀원 부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수녀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삶의 여정, 어려움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외의 고통과 회복력의 강인함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손길을 통해 수혜자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수녀들 또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은 트랜스젠더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더 큰 이해와 수용, 포용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포용을 위한 첫걸음”은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가장 필요한 곳에 희망을 되찾아 주는 노트담 수녀회의 사명을 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의 시작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존엄성을 세우고, 모두를 위한 더욱 포용적이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